

#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Library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Poor in Korea

노 영 희 (Younghee Noh)\*

장 로 사 (Rosa Cha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동향 분석    |
| 2. 선행연구        | 5. 논의점 및 미래연구 |
| 3. 연구설계 및 연구질문 | 6. 결론 및 제언    |

### 초 록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핵기관으로서 최근 도서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 및 미래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정보불평등 계층 대상의 국내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고, 해당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①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 및 사업 확대, ② 학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접근 및 연구환경 조성, ③ 도서관계 차원에서의 정보불평등 계층별 서비스의 강화 및 전문사서 배치, ④ 사서의 대학원 진학 및 연구 장려를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 노인, 아동, 청소년, 농어촌, 저소득층, 난민(북한이탈주민) 정보불평등 계층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미래연구들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Libraries are recently emerging as the core institutions designed to resolve the information equality that is forecasted to further deepen with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era. This study thus analyzed the trends of studies on the library services offered to people suffering information inequality in Korea, and proposed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research and future studies so as to strengthen the domestic library services targeting the people suffering information equality and to promote the research. As a result, proposed as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research were ① Policy support and project expansion at the national level, ② Various approaches and research environment creation at the academic level, ③ Strengthening of services for the various levels of people suffering information inequality and deployment of professional librarians at the level of libraries, and ④ Encouraging librarians to enroll with graduate schools and to conduct research. Further, proposed were the future studies that can be approached according to the various levels of people suffering information inequality, such as disabled people,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elderly people, children, youth, agricultural and fishing areas, low-income people, and refugees(North Korea defectors).

키워드: 정보불평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연구동향

Information Inequality, Information Poor, Library Service, Research Trend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rschang120@gmail.com / ISNI 0000 0004 7707 1229)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9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63-82,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063]

##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로봇, 드론 등)이 출현함에 따라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불평등 계층(Information Poor)<sup>1)</sup>에 대한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노상현 2017, 37). 이러한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공공서비스기관은 바로 도서관이다. 즉, 새로운 시대에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정보불평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 및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책임이 있다.

이에 현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하여 관련 핵심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중요성은 날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정보불평등의 해소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이며,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더욱 부상(浮上)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헌정보학 세부전공이나 분야 및 관중 중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해당 세부전공이나 분야 및 관중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연구가 가능하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 및 미래 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정보불평등 계층 대상의 국내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고, 해당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도서관계 측면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계획 및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문헌정보학계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신기술이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① 최근에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내의 연구 동향과 ②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계에서 이루어진 특정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관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정보불평등 계층’을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 및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의 효시는 한상완 등(1996)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문이다. 연구자는 통일에 앞서 남북한 도서관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사회형 및 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념의 도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난민의 한 유형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매우 저조하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근래에 박미향(2017), 송승섭(2018)의 논문과 같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동향의 큰 흐름 중 하나는 바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안인자, 노영희, 장로사(2018a, 2018b)는 2018년 같은 해 두 편의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 중 한 편은 저소득계층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특히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으로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동향의 주요 흐름은 이전까지는 매우 미비하던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 정부가 설정한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가 관련 연

구를 촉진시킨 원동력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최근에 수행된 국외연구로서 McGowan et al.(2018)은 'AnyAbility'라는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였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친절서비스 모델로서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관리 중심의 파트너십을 통합한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2014년 4월 손턴과 콜로라도의 Anythink 도서관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 결과, 'AnyAbility'는 서비스와 협력의 증가, 성인 장애인 이용자의 패턴과 독립적인 방문의 변화, 담당직원의 증가와 같은 도서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celis(2018)는 도서관은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실행 가능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이론적 틀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① 기획 과정(Planning process) 및 비판담론(Critical discourse), ② 사회정의의 한 부분으로서 정보공정성(Information justice), ③ 보조기술(AT, Assistive Technologies)과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 세 가지를 들었다.

즉, 국외의 경우 도서관계에 인지장애와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적으로 포용하여 서비스하는 문화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 및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도서관의 임무와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최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보불평

등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도서관의 의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을 포용하는 도서관계의 문화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요 트렌드로 밝혀졌다.

둘째, 최근 5년 동안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특정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정보학 세부전공 중 하나로 한정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한 연구로서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을 조망한 이용재, 김경덕(2014)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이후 이지연, 김준섭(2016)은 정보서비스 영역 가운데 하나인 정보이용자연구를 집중조명하여 이에 대한 동향을 모색한 논문이 발행되었다.

또한 문헌정보학에 포함되는 한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연구동향을 파악한 연구로서 디지털 큐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김관준(2015)의 논문과 HCI 분야 문헌정보학 연구를 주제로 한 이지연 외(2016)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이외에 하나의 도서관 관중에 포커스를 두고 이에 대한 연구동향을 규명한 연구로서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이해영, 박현영(2016)의 논문이 존재한다. 이후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조망한 김소희, 서혜란(2017)의 논문과 공공도서관의 연구동향을 주제로 한 이해영(2017)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에 포함되는 여러 세부전공과 분야 및 관중 중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연구는 더욱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내용이

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련 국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정보불평등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서비스의 연구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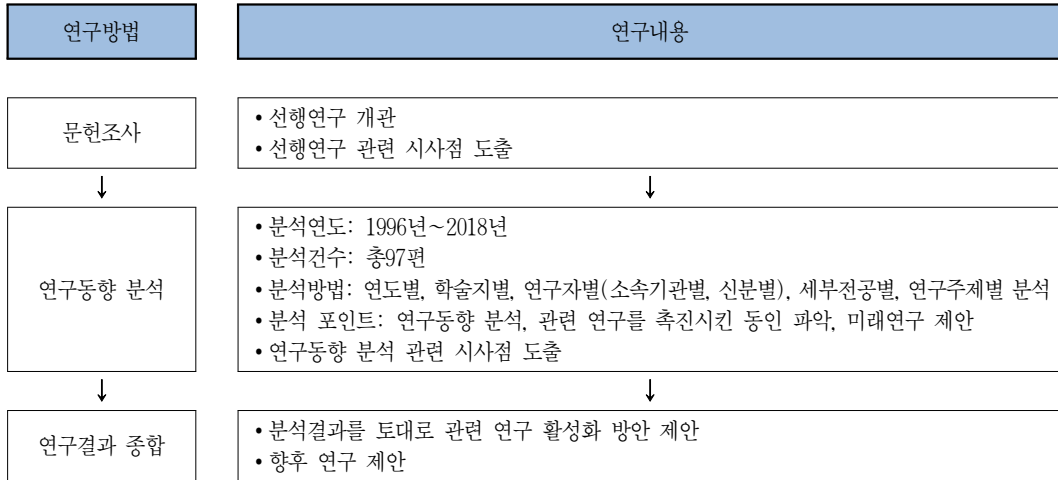
### 3. 연구설계 및 연구질문

#### 3.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DBPIA에서 ① 도서관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보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불평등 계층 그리고 ② 도서관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보불평등 세부적인 각 유형별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다문화, 난민,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여 총26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도서관서비스와 관련 없는 정보불평등 계층 관련 논문 및 원문 획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총97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행된 총9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학술지별, 연구자별(소속기관별, 신분별), 세부전공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 논의될 연구질문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체계도

- RQ 1: 국내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은 어떻게 되는가?
- RQ 2: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된 계층의 연구는 어느 분야이며, 가장 저조하게 수행된 계층의 연구는 어느 분야인가?
- RQ 3: 한국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어떻게 되는가?
- RQ 4: 국내에서 미비하던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를 촉진시킨 동인(動因)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들 수 있는가?
- RQ 5: 미래연구로서 향후 한국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로 어떤 주제의 연구를 제안할 수 있는가?

## 4. 연구동향 분석

### 4.1 연도별 분석

#### 4.1.1 연도별 전체현황 분석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총97편의 연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6년에 1편(1.0%)의 논문을 시작점으로 하여 초반 시점인 2002년, 2003년, 2005년에는 각각 1편씩(1.0%)만이 출판되었으며, 2006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는 3편(3.1%)에서 10편(10.3%)까지의 논문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가 간행된 해는 각각 10편씩(10.3%)으로서 2009년과 2015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007년(9.3%), 2011년, 2017년에 각각 9편씩(9.3%) 관련 연구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전체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으로서 한국에서 1996년부터 2005년

까지는 각각 1편(1.0%)씩의 논문만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한 수준으로 출판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하지만 4편(4.1%)의 연구가 발행된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9년에는 10편(10.3%)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가 생산된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과연 2006년과 2009년에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를 촉진시킨 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한 첫 움직임으로서 「도서관법 제12조와 제13조」에 본 기구가 명시되고 도서관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해가 2006년이다. 또한 2009년에 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정책과 제로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강화'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도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련 기구의 설립 및 정책으로 관련 목표와 과제가 추진되면 이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표 1〉 참조).

#### 4.1.2 정보불평등 계층에 따른 연도별 현황 분석

수집된 총97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불평등 계층 유형은 7개(북한이탈주민, 노인, 저소득계층, 농어촌, 난민, 다문화계층, 장애인)로 분류되어졌다. 또한 정보불평등 모든 계층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정보취약계층, 정보소외계층, 정보불평등 계층 등과 같이 정보불평등 계층을 의미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불평등 계층이라는 용어가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2〉 참조).

정보불평등 계층에 따른 연도별 현황을 순위별로 분석해보면, 1순위는 다문화계층에 대한 연구로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35편(36.1%)이 수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 2007년 2편을 시작으로 하여 2009년에 6편의 가장 많은 다문화계층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2순위는 장애인계층에 관한 연구로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27편(27.8%)이 수행되었고, 구체적으로 2007년 3편을 시작으로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4편씩의 가장 많은 장애인계층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모든 계층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13편(13.4%)

〈표 1〉 연도별 논문 수 및 비율

연도	1996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편(%)	1 (1.0)	1 (1.0)	1 (1.0)	1 (1.0)	4 (4.1)	9 (9.3)	6 (6.2)	10 (10.3)	3 (3.1)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편(%)	9 (9.3)	8 (8.2)	6 (6.2)	6 (6.2)	10 (10.3)	6 (6.2)	9 (9.3)	7 (7.2)	97 (100.0)

〈표 2〉 정보불평등 계층에 따른 연도별 분석

다문화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편(%)	2	3	6	1	4	1	3	4	4	4	2	1	35 (36.1)
장애인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편(%)	3	2	2	2	4	3	2	1	4	1	2	1	27 (27.8)
북한이탈 주민	96	06	17	18	계(%)	저소득	05	06	18	계(%)	난민	06	계(%)
편(%)	1	2	1	1	5 (5.2)	편(%)	1	1	1	3 (3.1)	편(%)	1	1 (1.0)
노인	02	03	07	12	14	15	17	18	계(%)	농어촌	09	13	계(%)
편(%)	1	1	2	1	1	2	2	1	11 (11.3)	편(%)	1	1	2 (2.1)
종합	정보불평등 계층		11	12	16	17	18	계(%)	정보소외 계층		08	계(%)	
	편(%)		1	3	1	2	1	8(8.2)	편(%)		1	1(1.0)	
	정보취약계층		07	계(%)	아웃 리치	09	18	계(%)	종합적인 연구 총계(%)				
	편(%)		2	2(2.1)	편(%)	1	1	2(2.1)	13(13.4)				
총계(%)										97(100.0)			

이 수행되었으며, 정보불평등 계층을 뜻하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세부적으로 정보불평등 계층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8편(8.2%), 정보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2편(2.1%), 아웃리치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2편(2.1%), 정보소외계층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1편(1.0%)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시대별로 보았을 때 2007년과 2008년 및 2009년에는 정보취약계층, 정보소외계층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근래에는 정보불평등 계층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순위위는 노인계층에 대한 연구로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11편(11.3%)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2002년 1편을 최초로 하여 2007년과 2015년, 2017년에 각각 2편씩의 가장

많은 노인 계층 관련 연구가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계층 연구가 5편(5.2%), 저소득계층 연구가 3편(3.1%), 농어촌계층 연구가 2편(2.1%), 난민계층 연구가 1편(1.0%)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불평등 계층에 따른 연도별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으로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는 1996년에 생산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정보불평등 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다문화 계층이 아닌 소수 그룹인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시초로 하여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 이목을 끈다.

둘째,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

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다문화 계층과 장애인 계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즉, 이들 계층에 편중되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정보불평등 특정 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가장 저조한 저소득층, 농어촌과 북한이탈주민 이외의 다양한 인종의 난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생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거에는 미비했던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가 최근 2017년 이후로 점차 수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도서관계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강구 및 관련 연구도 활성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 4.2 학술지별 분석

본 연구대상으로 수집된 총97편의 논문을 학술지별로 분석한 결과,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

회지에서 총32편(33.0%)의 가장 많은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총30편(30.9%)의 논문이 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서 총18편(18.6%), 정보관리학회지에서 총13편(13.4%)의 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로서 사회과학연구, 인문과학논총, 인문학논총,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에서 각각 1편씩(1.0%)의 논문이 출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

학술지별 현황에 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시사점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30편대로서 관련 논문이 많이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헌정보학계 안에서 출판되는 학술지들의 특징이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즉, 여러 문헌정보학 학술지들 중 이 두 학술지가 정보서비스 분야의 논문들이 많이 출판되는 특성이 있고, 정보관리학회지나 한국비블리아학회지보다 창간된 역사가 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4.3 연구자별 분석

연구자별 분석을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연구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표 3〉 학술지별 분석

학술지명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계(%)
편(%)	13(13.4)	32(33.0)	30(30.9)	18(18.6)	97 (100.0)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인문과학논총	인문학논총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편(%)	1(1.0)	1(1.0)	1(1.0)	1(1.0)	



세부적으로 주저자와 공동연구자의 소속기관과 신분을 파악하였다.

#### 4.3.1 주저자별

##### (1) 연구자 소속기관별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의 주저자로서 먼저 제1저자 총97명에 대한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형은 대학, 도서관, 연구소 3개로 구분되어졌다. 이중 대학이 80명(82.5%)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외에 도서관이 11명(11.3%), 연구소가 6명(6.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신저자는 총2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유형은 대학과 연구소 2개로 나누어졌다. 조사결과, 소속기관이 22명(95.7%)으로서 대학에 매우 편중되어 있으며, 이외에 연구소가 1명(4.3%)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 (2) 연구자 신분별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의 주저자로서 제1저자 총97명의 신분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교수, 강사, 학생, 사서, 연구원, 기타 6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졌으며, 교수가 50

명(51.5%)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학생이 17명(17.5%), 강사와 사서가 각각 11명(11.3%), 연구원이 7명(7.2%), 기타가 1명(1.0%)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반면에 교신저자 총23명의 신분은 교수와 학생 및 연구원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으며, 교수가 21명(91.3%)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생과 연구원은 각각 1명(4.3%)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5〉 참조).

#### 4.3.2 공동연구자별

##### (1) 연구자 소속기관별

공동연구자는 총4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인 공동연구에서 최대 5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49명 공동연구자의 소속기관을 조사한 결과, 유형은 대학, 도서관, 연구소, 기타 4개로 구분되어졌으며, 대학이 40명(81.6%)으로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소가 6명(12.2%), 도서관이 2명(4.1%), 기타가 1명(2.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연구자 신분별

총49명에 대한 공동연구자의 신분을 파악한

〈표 4〉 주저자의 소속기관별 분석

구분	대학	도서관	연구소	계(%)
제1저자	80(82.5)	11(11.3)	6(6.2)	97(100.0)
교신저자	22(95.7)	-	1(4.3)	23(100.0)

〈표 5〉 주저자의 신분별 분석

구분	교수	강사	학생	사서	연구원	기타	계(%)
제1저자	50(51.5)	11(11.3)	17(17.5)	11(11.3)	7(7.2)	1(1.0)	97(100.0)
교신저자	21(91.3)	-	1(4.3)	-	1(4.3)	-	23(100.0)

결과에 따르면, 교수, 강사, 학생, 사서, 연구원, 기타 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졌다. 이 중 교수가 25명(51.5%)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13명(26.5%), 연구원이 6명(12.2%)의 순위로 집계되었다. 이외에 강사와 사서가 각각 2명(4.1%), 기타가 1명(2.0%)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연구자별 소속기관과 신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시사점으로 주저자와 공동연구자 모두 소속기관은 대학, 신분은 교수와 강사 및 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학계에 편중되어 있는 정보불평등 관련 연구의 집중현상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불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원 차원에서의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원 입학자원을 확보하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연구 실적을 승진에 반영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4.4 세부전공별 분석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에서는 세부전공을 크게 정보학, 정보서비스, 자료조직, 도서관경영, 서지학, 기록관리 6개로 구분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총97편의 세부전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와 관련성이 적은 서지학을 제외한 문헌정보학 세부전공 중 도서관경영과 기록관리 분야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보서비스, 정보학, 자료조직 세부전공 분야에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정보서비스가 82편(84.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학이 8편(8.2%), 일반이 6편(6.2%), 자료조직이 1편(1.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세부전공에 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출된 시사점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는 82편(84.5%)으로 정보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자료조직이나 도

〈표 6〉 공동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신분별 분석

소속기관	대학	도서관	연구소	기타	-	-	계(%)
명(%)	40(81.6)	2(4.1)	6(12.2)	1(2.0)			49(100.0)
신분	교수	강사	학생	사서	연구원	기타	계(%)
명(%)	25(51.0)	2(4.1)	13(26.5)	2(4.1)	6(12.2)	1(2.0)	49(100.0)

〈표 7〉 세부전공별 분석

세부전공	일반	정보서비스	정보학	자료조직	계(%)
편(%)	6(6.2)	82(84.5)	8(8.2)	1(1.0)	97(100.0)

서관경영 및 기록관리 쪽으로는 해당 연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보불평등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조직과 도서관경영 및 기록관리 분야의 연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문헌정보학계 여러 학회들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조직과 도서관경영 및 기록관리 분야의 연구토대를 제공하는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 4.5 연구주제별 분석

연구주제별 분석은 논문에 연구자가 직접 부

여한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키워드를 포함하였다. 즉, 한 논문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주제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보불평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논문 총97편의 연구주제는 크게 10개(정보불평등 계층 종합,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다문화, 난민, 북한이탈주민)로 구분되어졌다. 이들 각각에 대해 세부 주제별로 정보격차,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도서관정책, 사서, 이용자, 자료, 홈페이지, 협력, 자원봉사, 지역사회, 정보행태,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표 8〉 참조).

〈표 8〉 연구주제별 분석

연구주제	세부주제
정보불평등 계층 종합	[정보격차] 정보문해, 디지털격차
	[도서관]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보서비스, 도서관서비스, 정보취약계층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서비스 전략
	[도서관정책] 도서관 발전정책, 문화정책, 문화복지 정책, 정보복지
	[이용자] 이용요인
	[지역사회] 지역문화, 지역문화콘텐츠, 지역문화기반시설
아동	[서비스] 어린이서비스
	[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이용자] 소외계층 아동,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사회복지사 참여형 도서관서비스
	[이용자] 탈북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노인	[정보격차] 정보빈곤
	[도서관]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보서비스, 노인서비스, 평생교육, 서비스품질 평가
	[도서관정책]
	[사서] 노인서비스 전문사서, 노인서비스 교육
	[이용자] 고령이용자 특성, 이용자 만족도
	[자료] 큰 글자도서, 출판
	[홈페이지]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도서관 공간구성

연구주제	세부주제
장애인	[정보격차]
	[도서관]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서비스] 정보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서비스 기준, 서비스 평가지표
	[프로그램] 도서관프로그램, 정보활용교육, 책임어주기
	[도서관정책] 국가도서관 정책, 도서관 장애인정책, 도서관 기준 및 지침, 교육복지
	[사서]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장애인서비스 교육,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직무만족
	[이용자] 시각장애아동,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장애인 대학생, 이용자 인식, (비)이용 요인, 이용자 분석, 장애인 요구
	[자료] 대체자료
	[홈페이지] 장애인 정보포털, 웹 접근성
	[협력] 도서관서비스 협력망
	[자원봉사] 도서관 자원봉사,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 매뉴얼, 자원봉사 활동모형
	[도서관 홍보]
	[도서관 시설] 도서관 장애인시설
저소득층	[정보격차] 정보소외, 디지털정보격차
	[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서비스] 학교도서관 서비스
	[정보행태] 일상 정보행태, 청소년 정보행태
다문화	[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다문화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서비스] 정보서비스, 다문화서비스, 이민자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도서관 포털서비스, 서비스품질 요인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다문화도서관 프로그램, 통역번역서비스, 어린이 문해, 숙제도우미, 문화다양성 교육
	[사서] 다문화서비스 전문사서, 사서 역량, 문화적 역량, 사서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인식, 인식변화
	[이용자] 이민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다문화여성, 다문화청소년,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유학생, 다문화인, 비다문화인, 정보요구, 만족도조사, 독서자신감
	[도서관정책] 다문화도서관 정책
	[자료] 다문화자료, 자료입수
	[홈페이지] 디지털도서관, 도서관 홈페이지
	[협력] 지역사회기관 협력, 도서관 대외봉사
	[지역사회] 다문화지원기관
	[정보행태]
[목록] 도서관목록, 번지목록	
[기타] 이용자와 사서 인식비교, 네트워크 분석, 다문화도서관시스템	
난민	[정보격차] 정보소외, 정보빈곤
	[서비스] 정보서비스
	[이용자] 난민, 정보요구
	[정보행태]
북한이탈주민	[도서관] 북한도서관, 국회도서관
	[도서관정책] 남북한 도서관 제도
	[홈페이지] 남북한 전자도서관
	[협력] 남북협력, 문화교류협력, 정보기술 교류, 도서관협력
	[기타] 통일

첫째,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불평등 계층을 종합한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6개(정보격차,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정책, 이용자, 지역사회)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정보격차]의 디지털격차에 대한 주제, [서비스]의 서비스 전략에 대한 주제, [이용자]의 이용요인에 대한 주제의 정보불평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수행된 점이 주목된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3개(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로 구분되었다.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을 살펴보면,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불평등 계층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인 아동 중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2개(서비스, 이용자)로 분류되어졌다.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불평등 계층 청소년으로 탈북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것이 이목을 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보불평등 청소년 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9개(정보격차,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정책, 사서, 이용자, 자료, 홈페이지, 기타)로 이루어졌다. 이 중 [서비스]의 도서관 노인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주제, [사서]의 노인서비스 전문사서, 노인서비스 사서교육에 대한 주제, [이용자]의 고령이용자 특성, 노인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주제, [홈페이지]의 노인이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제, [기타]의 노인을 위한 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주제가 특색이 있다.

다섯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13개(정보격차,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도서관정책, 사서, 이용자, 자료, 홈페이지, 협력, 자원봉사, 도서관 홍보, 도서관 시설)로 나누어졌다. 이 중 [서비스]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지표에 대한 주제, [사서]의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사서교육·사서교육 교과과정, 직무만족에 대한 주제, [이용자]의 장애인 대학생, 이용자 인식, (비)이용 요인, 장애인 요구, 이용자 분석에 대한 주제가 주목된다. 또한 [자료]의 대체자료에 대한 주제, [홈페이지]의 장애인 정보포털, 웹 접근성에 대한 주제, [자원봉사]의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 매뉴얼, 자원봉사 활동모형, [도서관 홍보]에 대한 주제도 이목을 끈다.

여섯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2개(정보격차, 이용자)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불평등 계층 중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곱째,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2개(서비스, 정보행태)로 구분되었다.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불평등 계층 중 농어촌 계층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덟째,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12개(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사서, 이용자, 도서관정책, 자료, 홈페이지, 협력, 지역사회, 정보행태, 기타)로 분류되어졌다. 이 중 [기타]의 이용자와 사서의 다문화서비스 인식비교에 대한 주제와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주제가 특색이 있다.

아홉째, 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

의 세부 연구주제는 4개(정보격차, 서비스, 이용자, 정보형태)로 분류되어졌으며, 열 번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불평등 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는 5개(도서관, 도서관정책, 홈페이지, 협력, 기타)로 나누어졌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는 다양한 난민의 유형 중 북한이탈주민에 집중되었다.

종합 시사점으로 가장 다양한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계층을 순위별로 보면, 1순위는 장애인 계층이고, 2순위는 다문화 계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만큼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정보불평등 특정 계층에 대한 심층연구에 적용될만한 주제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청소년, 농어촌, 저소득층, 난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특히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난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이외에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발표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제시한 핵심가치로서 '사람에 대한 포용성'과 전략방향으로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5. 논의점 및 미래연구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점은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내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및 향후 수행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미래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1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

#### 5.1.1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 및 사업 확대

앞에서 연도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1996년을 효시로 2005년까지는 매우 저조하게 수행되던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가 2006년이 전환점이 되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인은 물론 정보불평등 계층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주제이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즉,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 및 사업의 확대는 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체(要諦)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및 해당 사업이 확대될 것을 제안한다.

#### 5.1.2 학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접근 및 연구 환경 조성

정보불평등 계층에 따른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시사점으로 지금까지 여러 정보불평등 계층 중 다문화 계층과 장애인 계층에 편중되어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앞으로 농어촌,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세부전공별 분석결과에서 도서관서비스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료조직이나 도서관경영 및 기록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져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앞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계 차원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즉, 주제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미비한 농어촌,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은 정보불평등 특정 계층 및 세부전공 측면에서 정보불평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조직과 도서관경영 및 기록관리 분야의 연구토대를 제공하는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 5.1.3 도서관계 차원에서의 정보불평등 계층별 서비스의 강화 및 전문사서 배치

정보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불평등 계층의 정보격차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노상현 2017, 37). 이러한 미래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핵기관으로서 최적화된 곳은 바로 도서관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정보불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으로서 관련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도서관계에서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해당 핵심과제

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서관계 차원에서 정보불평등 계층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불평등 계층 전문사서를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에 대한 사안이 도서관계에서 현실화된다면, 관련 연구들도 파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서관 현장에서 정보불평등 계층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전문사서가 배치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 및 장애인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전문사서의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과정을 개발한 연구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5.1.4 사서의 대학원 진학 및 연구 장려

연구자별 소속기관과 신분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학계(대학 소속의 교수, 강사, 학생)에 편중되어 있는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의 집중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서들의 대학원 진학 및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서들의 정보불평등 계층에 대한 연구의 강화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서관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이다.

이에 앞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서들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에서 전공 관련 실무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원 입학자원을 확보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연구 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5.2 미래연구 제안

연구주제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출판된 연구의 세부주제를 벤치마킹하여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생산되지 않은 계층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래연구를 제안하였다. 즉, 다문화 계층을 대상으로 세부주제로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면, 이를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계층에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정보불평등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계층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가장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출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장서관리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는 저조한 편이며, 이에 향후 연구로서 장애유형별(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로 서비스해야 하는 다양한 대체자료(점자자료, 녹음자료 등)를 대상으로 한 장서관리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다문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연구로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 다문화서비스 전문사서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 다문화이용자의 도서관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이용자와 사서의 다문화서비스 인식을 비교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한국 사회는 점차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불평등 계층인 노인과 관련된 미래연구로서 무엇보다 고령이용자 대상의 자원봉사 매뉴얼이나 자원봉사 활동모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인 아동 중에는 시각장애 아동 대상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북 아동과 농어촌 지역의 아동 및 장애인 아동 중 청각장애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불평등 청소년, 농어촌, 저소득층, 난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연구는 다방면의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불평등 계층별로 이용자 특성 및 요구 조사, 도서관 이용요인, 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도서관서비스 전략, 특화된 공간구성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단, 정보불평등 특정 계층을 위한 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으로 정보불평등 해당 계층이 특화된 공간을 원하는지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199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행된 총 9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학술지별,



연구자별(소속기관별, 신분별), 세부전공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 및 미래연구를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각각 1편(1.0%)씩의 논문만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출판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4편(4.1%)의 연구가 발행된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9년에는 10편(10.3%)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가 생산된 점이 주목된다. 물론 정보불평등 계층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처럼 2006년과 2009년에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를 촉진시킨 동인은 바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립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에 발족되었고,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2009년에 발표되었으며, 도서관 정책과제로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강화'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도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련 기구의 설립 및 정책으로 관련 목표와 과제가 추진되면 이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둘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다문화 계층과 장애인 계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생산됨으로써 이들 계층에 편중되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에 향후

정보불평등 특정 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까지 가장 미비한 농어촌과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이외의 다양한 민족의 난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에는 저조했던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가 최근 2017년 이후로 점차 수행되고 있는 점이 이목을 끈다. 이는 현 정부가 설정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정책의 파급효과로서 도서관계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강구 및 관련 연구도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①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 및 사업 확대, ② 학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접근 및 연구환경 조성, ③ 도서관계 차원에서의 정보불평등 계층별 서비스의 강화 및 전문사서 배치, ④ 사서의 대학원 진학 및 연구 장려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래연구로서 먼저 장애인 관련 주제로서 대체자료(점자자료, 녹음자료 등)를 대상으로 한 장서관리 측면의 연구를 제안한다. 다문화 관련 주제로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연구, 다문화이용자의 도서관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등을 제안한다. 또한 노인 관련 주제로서 고령이용자 대상의 자원봉사 매뉴얼이나 자원봉사 활동모형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아동 관련 주제로서 탈북아동과

농어촌 지역의 아동 및 장애인 아동 중에는 청각장애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정보불평등 청소년, 농어촌, 저소득층, 난민, 북한 이탈주민 관련 주제로서 이들 각각에 대한 이용자 특성 및 요구 조사, 도서관 이용요인, 도서관 서비스 평가지표, 도서관서비스 전략, 특화된 공간구성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향후 연구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향후 도서관계 측면에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계획 및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둘째, 문헌정보학계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신기술이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가운데 한국에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김소희, 서혜란. 2017.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363-392.
- [2] 김판준. 2015.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동향 분석과 과제: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1): 265-205.
- [3] 노상현.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산업관계연구』, 27(2): 33-55.
-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세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2019-202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7] 박미향. 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17-340.
- [8] 송승섭. 2018. 정보기술 교류를 통한 남북한 전자도서관의 협력 가능성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9(3): 131-160.
- [9] 안인자, 노영희, 장로사. 2018a. 정보불평등 대상별 도서관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현황 진단.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271-295.
- [10] 안인자, 노영희, 장로사. 2018b.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113-137.
- [11] 이용재, 김경덕. 2014.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 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25-50.
- [12] 이지연, 김준섭. 2016.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3): 201-223.

- [13] 이지연 외. 2016. 국내 HCI 분야 문헌정보학 연구의 역할 분석과 방향성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33(2): 177-200.
- [14] 이혜영, 박현영. 2016. 국내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구동향. 『정보관리학회지』, 33(3): 219-238.
- [15] 이혜영. 2017. 국내에서의 공공도서관 연구동향: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7-43.
- [16] 한상완 외. 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89-12.
- [17] Hanchinal, V. B. and Hanchinal, V. V. 2018. "Information Literacy in Indian Schools: Trend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8(4): 7-18.
- [18] McGowan, S., Martinez, H. and Marcilla, M. 2018. "AnyAbility: Creating a Library Service Model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Reference Services Review*, 46(3): 350-363.
- [19] Racelis, A. 2018. "Library Services for the Poor: Theoretical Framework for Library Social Responsibility." *Pedagogical Research*, 3(2): 1-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ohee and Suh, Hyeran. 2017.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Programs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363-392.
- [2] Kim, Pan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Digital Curation: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265-295.
- [3] Roh, Sangheon. 2017.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bl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7(2): 33-55.
- [4]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09-201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5]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14-2018*. Sejong: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6]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2019-2023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7] Park, Mihyang. 2017. "A Study on the Libr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for

- the Unified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317-340.
- [8] Song, Sungsup. 2018. “A Study on Library Cooperation Possibility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of South-North Korea Digital Library System.” *The Journal of Humanities*, 39(3): 131-160.
- [9] Ahn, Inja, Noh, Younghee, and Chang, Rosa. 2018a. “A Study on the Library Policies & Services for the Type of Information Inequali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271-295.
- [10] Ahn, Inja, Noh, Younghee, and Chang, Rosa. 2018b. “A Study on the Library Services for the Solution of the Information Inequality of the Low-Income Peopl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113-137.
- [11] Lee, Yongjae and Kim, Kyoungdoc. 2014. “A Study on Trends of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Academic Papers 2004-201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5-50.
- [12] Lee, Jeeyeon and Kim, Junsup. 2016. “Analyzing the Trends of the Korean Information User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201-223.
- [13] Lee, Jeeyeon et al. 2016. “Analysis of the Rol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lated Research Efforts in Korean Human Computer Inter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2): 177-200.
- [14] Lee, Heyyoung and Park, Hyunyoung. 2016. “Research Trends in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219-238.
- [15] Lee, Heyyoung. 2017. “Research Trends on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7-43.
- [16] Han, Sangwan et al. 1996. “A Study on Libraries Policies and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89-123.